

C. 전도서의 구조

1. 경험으로 본 인생(1장-2장)

“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()의 ()에서 나오는 것이로다”(전도서2:24)

2. 영적으로 본 인생에 대하여(3장-10장)

*전도서3:1-4

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()가 있나니

;

2 날 ()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()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()가 있으며

;

3 죽일 ()가 있고 치료할 ()가 있으며 헐 ()가 있고 세울 ()가 있으며

;

4 울 ()가 있고 웃을 ()가 있으며 슬퍼할 ()가 있고 춤출 ()가 있으며

;

3. 결론, 인생이 끝날 것을 기억하라!(11장-12장)

“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”(전도서11:9)

〈적 용〉

전도서,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책

※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사는가?

MAY-07-2025 수요일 바이블칼리지(Bible College 성경대학)

제20강 전도서,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책

▣ 바이블 칼리지(Bible College 성경대학) 터다지기

* 시가서 또는 성문서(히브리어 케투빔(The Writings 글들)
; 율기, 시편, 잠언, 전도서, 아가

* 전도서 명칭

(1) 히브리 정경 명칭 / קהלת(코헬렛 ① 모으는 사람

②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)

(2) 영어 명칭 / Ecclesiastes(전도서)

A. 전도서 서론

1. 기록자, 솔로몬(Solomon 평화, 평강)

*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제3대 왕으로 즉위하여 B.C 970-930년까지 통치

“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()의 말씀이라”(전도서1:1)

2. 전도서의 목적 /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.

“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()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”(전도서1:9)

*해 아래 새것이 없는 것은?

① 모든 것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.

② 인류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,

B. 전도서 이해

1. 전도서,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책

(1) 삶의 허무함과 절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.

“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”(전도서1:2)

(2) 성경 중에서 다른 책들과는 매우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화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.

“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”(전도서1:8)

***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(JESUS ALL)**

2. 전도서, 창조주는 생명과 참된 평강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게 해 준다.

“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()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,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”(전도서12:1)

3. 전도서, 소중하고, 유용한 것들은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절박한 심정

으로 세상을 향해 호소한다.

“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”(전도서12:6)

①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진다.

; 기름이 쏟아지고 등불이 꺼지는 것을 말한다.

②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.

;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없게 된 상황

“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”(히브리서 9:27)

4. 전도서, 모든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.

“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”(전도서12:13)

***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(Now all has been heard)**

⇒ **하나님을 경외하라!**

“...네가 네 아들 네 ()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()하는 줄을 아노라”(창세기22:12)